

투데이 칼럼

동학농민명예회복법 흔들기 이제는 멈춰야 한다

현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제2조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 무장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물론 1894년 3월은 고창 무장 기포일을 가리킨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1894년 1월 고부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이하 '혁명')의 시작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고부봉기 또한 나름대로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 봉기를 소중히 여기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혁명의 범주에 고부봉기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미흡한 점이 많아 혁명의 정신을 드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격하시키기 때문이다. 부족한 점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전민중

고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첫째, 사발통문의 사실성 부족이다. 사발통문은 서울까지 진격하고자 계획했던 고부봉기의 혁명적 성격을 잘 말해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통문은 고부봉기에 사용되었던 원본이 아니다.

한 사람 필체이면서 당시 통문 형식과 맞지도 않는다. 결론적으로 많은 세월이 흐른 뒤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두서없이 쓰여졌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고부봉기 때 고부성 점령'과 '무장기포 후 고부성 재점령'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두 사건의 개별 사실들에 있어 혼동이 있을 수 있으며 미화되

었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실제 서울에 대 신원하 명예교수와 동학역사 연구자가 표영삼 등 다수의 학자들은 사발통문에 있어 여러 오류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지도부의 지도력 부족이다. 많은 대중을 결집하려면 지도부가 죽기를 각오하고 뚜렷이 이념을 밝히 대의를 선포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주모자를 알 수 없게 비밀리에 추진하는 사발통문만을 사용한 것은 지도부 의식이 민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셋째, 참여 주민들의 시대외식 부족이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조병갑

의 익산군수로의 전임(專任)과 고부군수로의 임임(任任)에 따라 해산과 결집을 하였고, 후임으로 온 군수 박원명의 회유에 의해 지역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고 흠뻑 빠져 버렸다. 시대외식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반해 무장기포는 인근 지역 주민 4000여명이 정봉준, 손화중, 김개남과 함께 평등한 세상,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또한 한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반역이라는 조선 후기 시대 인식의 한계와 두려움을 처음으로 극복하고 죽기를 각오하면서 무장포고문을 대내외에 선포한 중대한 날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전후 사정들을 감안할 때 고부봉기는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더 이상의 특별법 흔들기는 명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을 계기로 모든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된 무장기포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혁명 참여자들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국민의힘 입당한 이용호 의원

최근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이를 두고 해당 지역구인 '남원 입실순창'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사적 욕망과 일신의 영달을 위해 시민들이 맡긴 권한을 권력의 사장에 팔아넘겼다"고 비판했다. "지역주민과 전북 도민을 배반한 기회주의적 처신"이라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힘'을 택한 자신의 행보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한없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민이 바라던 민주당 복당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 8개월여 기간 자신을 외면했다"며 근본 원인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그는 "심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士爲知己者死)"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용호 의원이 21

대 국회에서 자신이 첫 발의한 '공공의대법 통과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의사협회는 당초부터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의힘' 역시 법안 처리에 사르릉하다. 야당이 반대해 연내 처리 대상 법안에서 빠졌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면서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에 가서도 '공공의대법'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고 공공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때가 되면 전향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도는 정치권이 의사협회의 논치를 보여 공공의대법 처리를 코로나 상황 이후로 미루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하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사협회의 논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제 두꺼비회관 박옥진씨 이웃사랑

김제 두꺼비회관 박옥진 대표의 이웃사랑이 귀감(龜鑑)이 되고 있다. 박옥진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설 명절과 추석 명절마다 김제 지역 장애인과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봉사 와 나눔의 손길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최근 김장 김치를 손수 만들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9월 추석 명절에는 김제제일사회복지관과 김제시장애인중합복지관을 이용하는 100가정에 명절 음식 꾸러미를 전달했다.

지난 2월에도 설 명절을 맞아 90가구에 명절 음식꾸러미를 전달했다. 명절 음식꾸러미는 손수 만든 설렁탕, 떡국떡, 부침개, 조림류, 김치 등으로 만들었다.

음식꾸러미는 복지관을 통해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박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에는 김제 지평선축제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관내 청결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는 환경 미화원들을 격려했다.

박 대표의 후원으로 환경 미화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박옥진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기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고자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웃 사랑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겨울철을 맞아 음식을 손수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는 일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가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너도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위트가 되어야 할 때이다.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박옥진 대표의 선행이 지역 사회에 온기(溫氣)를 전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고흐 영상 아트전 보러 오세요"



10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 오를랜드의 플래그스태프 힐에 높이 약 23m짜리 빈센트 반 고흐 형상의 열기구가 뜨고 있다. 이 열기구는 노스사이드에서 열리는 '이머시브 반 고흐 피츠버그' 영상 아트 전시회를 홍보하기 위해 이곳에 설치됐다.

토네이도가 활취고 간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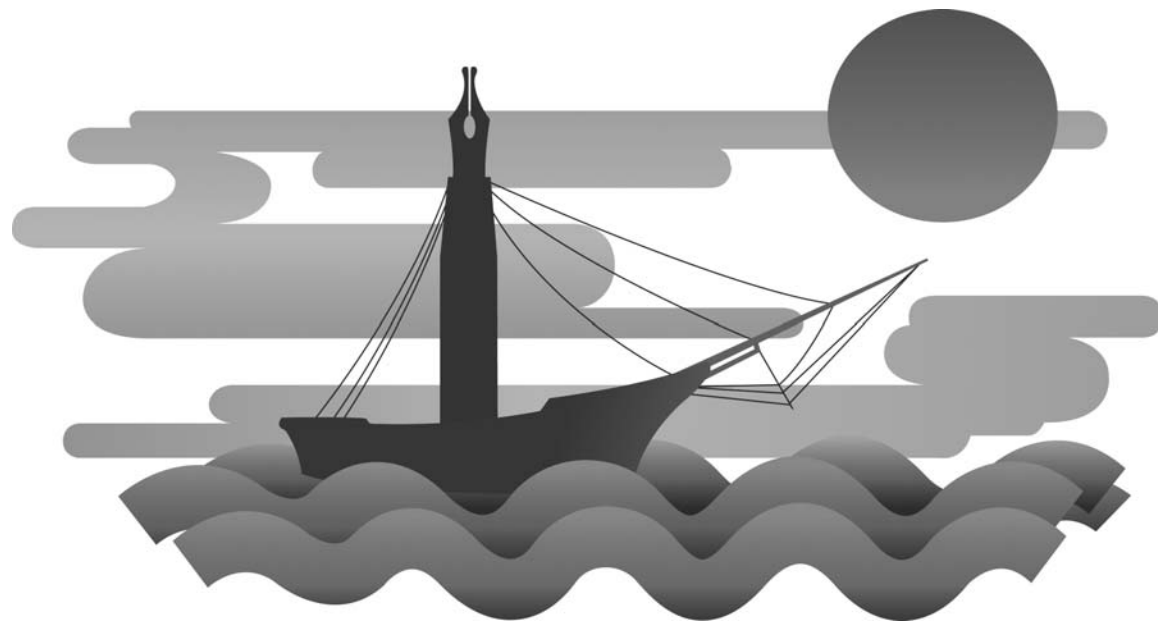
미국 중서부 및 남동부 6개 주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11일(현지시간) 켄터키주 브레멘에 파손된 가옥과 차량이 흩어져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